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논리와 이론들이 있다. 실체는 무엇인지 당장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극적인 논쟁들이 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듯이 심리적인 아픔도, 특히 중독적인 부분에서도 유전이나 환경적인 돌봄이나? 즉 뇌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등등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경험과 배움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논쟁이 벌어 질 때도 있는 것 같다. 오래된 논쟁일수록 혼란에 더 빠지기 마련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망막함이 들 때도 많다. 무엇이 되었든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상황을 보고 인식하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 어떤 쪽이든 무엇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경험하고 바라보는지, 거짓을 주장하든 진실을 말하든, 그것이 존재적 실체인지 심리적 실체인지 구분을 명료하게 짓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실존이나 심리적 실체적인가 오랜 시간 지나 봐야 알 수 있다. 늘 그렇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은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늘 변하지 않는다. 금도금은 순간에는 진짜 금 보다 더 금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많은 논쟁과 논리 속에는 각자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면면은 진실적 요소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오류적 해석이 발생 할 수 있기에 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통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은 어른으로써 생각하는 듯하나 사실은 많은 영역 어린 시절 경험에 근거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 하게 된다.

성인이 된 우리들은 유아 때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내면의 역동(움직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밖에 실제로 보여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데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보는 게 실제로 사실이라 쉽게 믿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논리를 펼치게 된다. 그래서 내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또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 밖에 세상에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심리 검사로 이용하는 것이 로샤검사¹⁾ 이기도 하다. 내면에 있다는 것은 경험한 것 - 이 경험한 것이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단면적인 경험과 그 경험에 따른 자신의 해석으로 만들어진 정보(퍼즐 조각 중에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고 전체의 퍼즐 그림을 알고 있다는 착각)- 을 가지고 밖에 세상에 투영시켜서 바라본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연구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것이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싸움이 2년 째 이어지다가 서로의 불신은 커지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면서 급기야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마지막으로 누구의 말이 맞나(남편이 외도한 것을 인정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전문가를 만나보자는 심정으로 내방한 경우인데 아내는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의 동선을 확인하고 싶어져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남편은 집에 오는 지하철역에 7시에 내리지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8시 넘어서 오는 것이다. 아내는 순간 아득한 옛 기억과 연결 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남편이 한 시간 가량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확증하기 시작했다. 이 아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람피우면서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1)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영어: Rorschach Inkblot Test)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헤르만 로르샤흐가 1921년에 개발한 성격검사 방법으로 좌우 대칭의 잉크 얼룩이 있는 열 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다.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카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엇처럼 보이는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등을 자유롭게 말하여 피험자의 성격을 테스트한다. 간단히 로르샤흐 검사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때 6살이었던 아내는 남자들은 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할 때도 내심 내 남편도 언젠가는 바람을 피울 텐데 어쩌지 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14년째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이 든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표정과 어투로 뉘달하면서 물어 보았다 “당신 어디서 무엇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남편은 약간은 당황한 듯이 아내가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을 가지고 별일 아니라는 듯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말한다. - 보통의 남자들의 반응이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구지 말할 필요 없는 것은 이야기 내용 중에 들어(아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은)가지 않는다. 반면 보통의 여성들은 세밀한 부분까지 말하는 경향이 있기에 아내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남편과 대화 하는 중에 남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느끼기가 쉽다. 아내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데 남편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그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내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남편이 나를 속인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더 꼬치꼬치 캐묻게 되고 불신을 싸여가게 된다 - 아내는 남편이 나를 속이는 것을 보니 어디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오는구나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퇴근 하고 조용히 집 근처 슈퍼나 편의점 앞에서 맥주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보낸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그러한 행동을 외도로 해석한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인간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 해석이 실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심리적 실체라고 말하고 인간에게 사건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리적 실체가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자신이 믿는 대로 본다. 밖에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것만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본 것에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그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욕망의 대상이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그것이 지나치면 중독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의미가 부여된 욕망을 예를 들어 보자. 성관계는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흥분되고 자신에게 기분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또는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섹스를 한다면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고 오르가즘의 경험으로 성관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쾌락적인 자극을 경험 시켜준다고 믿고 있는 이것은 마치 보편적인 느낌이고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 또한 자신의 부여한 의미로써만 자신에게 기분이 좋음과 설레는 만남의 경험이 될 뿐이지 만약 자신의 부여한 의미가 달라진다면 성관계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귀찮은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관계의 기분 좋음이 실제 한다고 생각한다. 성중독자의 내담자가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여자의 젖가슴과 자궁에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이 너무 황홀하고 좋다고” 이 내담자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여자의 몸이 그렇게 당신에게 황홀감을 주는 것은 당신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내담자는 “의미를 부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성관계 자체가 좋은 것 아니냐?” 고개를 갸웃웃하면서 질문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 물론 상담이 내담자에게 이런 설명을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이해하거나 다 받아 드리지는 않지만 때로는 내담자에 따라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 내담자가 거기에 해당 되었다 - “성관계를 할 때 서로의 피부가 닿고, 만져 지고, 온도와 소리, 냄새

등 이런 한 요소들이 나에게 자극이 되어 오르가즘이라는 것에 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에게는 성관계가 어떻게 느껴질 것 같은가요? 육체적 자극은 똑같이 자극 되는데 자신이 원하고 좋다고 의미가 부여 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적이고 흥분되고 심지어는 중독에 빠질 정도를 쾌락이라는 자극을 주지만 성폭행을 당하는 그 여성 또는 남성에게는 비참하고 모욕적이면 자신이 파괴되고 침범 당한 느낌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독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은 밤에 강도가 자신의 집에서 쳐들어 와서 자신을 겁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고 기대하는 일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보통의 여성의 심리 상태는 아니다- 그 여성에게 어느 날 기대한 일을 일어났다. 강도가 들어 왔고 자신을 겁탈 했다. 이 여성은 막상 기대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순간은 놀랐지만 무엇인가 더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또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대변을 보는 것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소변을 자신의 몸에 보라며 그 때 자신은 황홀경에 빠진다고 한다. 동물과 성관계를 하면서 쾌락적 만족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수많은 변태적²⁾ 행위들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성적인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무의식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이 욕망의 대상이 되어 이상성욕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만져지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티쉬나 변태적 성욕을 채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저 성적기호라고 말하고 도움 받지 않으려고 한다. 성적피해증³⁾ 또한 폭력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지만 그저 기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장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가지고 거리에서 이들을 찾아 성관계 맺는 남성들, 남성들끼리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여성들 끼리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각자가 경험하는 위치에서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이런 것들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도 자신의 행위에 심각성을 가지고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싶지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결핍된 감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적 기호일 뿐이라고 말 하겠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이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방어적으로 전환시키고 육욕적 형태인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체 그저 성적 기호가 되어 버린다. 결핍된 그것이 그리고 상처가 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잘 이해하고 수용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성적 기호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성에 집착 되어 있던 마음도 성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2) 성적도착·이상성욕·변태성욕(erotopathy)·성적이상·색정도착증이라고도 한다. 성애(性愛)의 대상에 관한 도착과, 사정(射精) 또는 유사한 생리적 현상을 동반하는 성적 쾌감(오르가슴)을 얻기 위한 성행위에 관한 이상이 있다. 성애의 대상에 관한 도착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애(페도필리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애,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체애(死體愛:네크로필리아) 등이 있다. 성행위에 관한 이상으로는 사디즘·마조히즘을 비롯하여 노출증·절시증(竊視症:몰래 들여다보는 이상성격)·트랜스베스티즘(이성의 의상을 걸쳐 입고 성적 만족을 얻는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이성이 몸에 걸치거나 입었던 것을 애무하며 만족하는 것은 페티시즘이라고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중 성적 욕구가 이상 향진되어 있는 것(음란증)은 각각 사티리어시스 및 님포마니아라고도 한다. 성적도착은 정상적인 성의 대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시적·환경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항구적인 것도 있다. 정신병자·신경증자에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성적도착, 즉 정신장애가 아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성애의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정체 또는 고착(固着)으로서 성적도착이 설명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3) 타인에게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병적인 심리상태를 일컫는 정신의학 상의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가 자학적인 경우나 상대로부터 강요를 받아 그에 복종하는 경우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수치심에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 이런 관계를 갖다가 종종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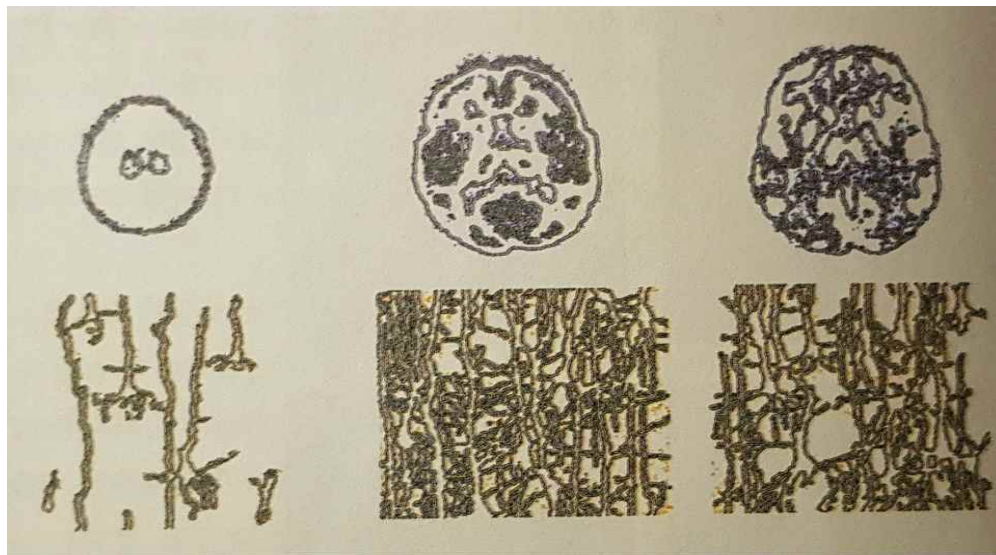
많은 남성 성중독자들은 자신이 태어 날 때부터 여자에 관심이 많았고 성적으로 왕성한 것이라 말하지만 성에 집착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열등감을, 남성의 정체성이 인정(수용)받지 못한 결과로 지나치게 성에 집착하게 되는지 모르고 그저 자신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그렇게 태어 난 것으로만 받아드리게 된다. 무의식적인 왜곡과 아픔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화 될 수 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위에서 말한 성중독 내담자도 나의 짧은 설명을 듣더니 무엇인가 새로움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돌아 간 뒤에 한 주 지나서 만났을 때 매일 하던 섹스를 2번 정도 했고 그 섹스마저도 옛날처럼 황홀경스럽지 않았다고 말한다. 가끔은 설명만으로 내담자의 마음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내면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증상이나 기타 현상들이 다스려지는 것을 임상현장에서 많이 보곤 한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깊이 이해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억압되고 왜곡되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살펴보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 판단되어진 신념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신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받아드리게 된다. 특히 자기 자신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밖의 세상도 왜곡시키기 마련이다. 심리치료란 왜곡된 그것을 바로 잡고 진실을 보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 자신이 믿는 그것을 바꾸기 싫어하는 본능이 있다. 그것이 아무리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기에 마음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교하게 접근 하는 방식으로 현대정신분석적 상담이 발전되고 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신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서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한 그 신념은 잘 내려놓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어떤 행동에 자녀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받아드릴 수 있다. 이 신념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로 일반화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등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감정은 분노나, 슬픔이나, 공허감, 외로움 등 힘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지어서 떠오르고 다시 부정적인 감정에 노예가 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나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은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런 과정이 반복 될 수록 평생 자신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좌절과 절망에 갇힌다. 그리고 합리화 하게 되는데 “내가 예민하게, 약하게, 게으르게, 불량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 뒤에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사랑스럽게 태어나지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처가 많을수록 자신이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망했고,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구나 생각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아적인 방식을 엄마들은 더욱 부추기는데 예를 들면 네 아빠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네가 임신이 되어서 헤어지지 못하고 여태껏 산다. (이 가정은 늘 아빠가 술 먹고 들어 와서 엄마를 때리는 집안이다)

우울증의 소견도 들어 보면,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뇌의 세라토닌 호르몬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면 왜 뇌에서 세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나오는가 물어 보면 그것은 기질적인 즉 타고난 것이라 말한다. 고민할 것도 더 이상 깊이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내가 모르면 그저 타고난 거야 기질이야로 넘어가 버린다. 이러한 형태는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

감이라는 좌절을 피하기 좋은 방식이다. 그러나 뇌에서 세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나오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물론 태어날 때부터 생리학적으로 뇌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설명에 포함 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생리학적인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뇌의 호르몬은 뇌 세포 자극에 의해 나온다. 뇌의 자극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즉 외부 대상과의 경험 속에서 뇌세포는 자극이 된다. 무엇인가 보는 것으로 시신경이 자극되고 피부가 닿으면서 오피오이드(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라는 호르몬이 생긴다. 이렇듯이 세라토닌 호르몬이 적절하게 뇌에서 분비되게 되는 과정은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눈빛, 엄마의 피부, 엄마의 냄새, 엄마의 맛(젖), 엄마의 목소리 등 외부의 따뜻한 오감의 자극들이 뇌의 세라토닌 호르몬을 흐르게 하는 세포를 자극하고 이 자극이 지속적일 때 뇌는 스스로 이 세포가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여 존속시키고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아 초기에 이런 뇌세포가 만약 자극되지 않는다면 뇌는 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뇌에서 필요 없는 세포들을 축소하거나 제거해 버린다. 만약 따뜻한 보살핌 즉 외부적 자극이 없다면 세라토닌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가 자극받지 못하기에 뇌는 이 기능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축소시켜 버린다. 이런 현상은 6년 안에 일어난다. 첫 번째 그림이 태어날 때 유아의 뇌이고 중간이 신경접속이 증가하면서 6세경의 뇌 밀도 모습이다. 6세가 지나면서 감소하는 모습이다.



기질적인 요소로 태어난 그 무엇이 우리를 정의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경적 경험이 나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보를 갖게 된다.

이제는 정신분석 문헌에서는 동성에게 성적인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무의식적인 역동들과 현장에서 임상적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동성애(HOMOSEXUALITY)란: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 동성애 성향은 외현적이거나 잠재적 또는 무의식적일 수 있다.

잠재적 동성애 (latenthornasexualit)에서 동성애 성향은 잠복해 있지만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용어는 사회적 제약이나 내적 갈등 때문에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사회적 제약이나 내적 갈등은 때때로 개인의 동성애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무의식적 동성애(unconscious homosexuality)는 성격 장애, 신경증, 꿈, 정신증 등의 분석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위장된 형태를 띤다. 이런 환자들은 좀처럼 외현적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유용한 함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잠재적이라는 용어와 무의식적이란 용어는 종종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이성애자들에게도 무의식적 동성애는 많건 적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 이 부분에서 위니콧은 아버지 자신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동성애 감정을 억압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여성스러운 모습이나 어린아이 특징인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지 않기에 이 아이는 아버지로 인해 박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은 남아의 이성애 감정을 방해할 수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증오의 감정이 계속 머무는 아이는 다른 대상을 향해 다른 감정을 품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프로이트(1905)는 동성애의 세 가지 하위 집단을: 절대적(absolute) 동성애, 양성애적(amphigenic) 동성애, 우발적(contingent) 동성애로 구별하였다. 절대적, 배타적, 필수적인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만 성적으로 흥분된다. 즉 이들은 반대성을 가진 사람에게 무관심 하거나 적대적이다. 양성애적 동성애자는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반대 성을 가진 사람 모두와 성 관계를 맺는다.

양성애적이라는 용어 대신 양성적(bisexual)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성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양성적이라는 용어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양성적 경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라도(Rado, 1949)는 이 것을 변종(variational) 동성애라고 불렀다.

우발적 동성애자(Rado의 용어로는 상황적 동성애)는 반대 성을 가진 사람과 성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특수 상황(예를 들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서 동성의 개인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은 성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이성애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인 동성애 행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범주화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청소년(청소년기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동성애를 사용하는)과 성적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동성애를 드러난 성적 행동에 따라 구분하는 이러한 분류는 서술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무의식적인 심리적 요인들과 정신역동적 요인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정신분석적 관점은 인간 성욕의 외적 표현은 항상 수많은 발달적 요인들과 우연히 발생하는 환경적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발달의 전오이디푸스적 및 오이디푸스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보통 억압되어 무의식이 되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회상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우리는 대상 선택을 결정짓는 초기 요인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동성애가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 예를 들어, 일부 관찰자들과 임상가들은 많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과 비슷한 가족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보통의 양육을 받았다고 제안한다(Isay, 1986).- 그러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그리고 미세한 영역들은 무의식에 억압되기에 - 이것과 관련된 역동적 요인들은 정신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만 발견될 수 있다.

신체적 요소(염색체와 호르몬)가 성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신체적 요인들이 태아의 해부학적 성을 결정짓는 반면, 성적 대상의 선택에는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적인 대상은 자신의 결핍과 갈등, 그리고 의미부여 된 것에 의해 결정 되는 상황을 설명 했듯이 신체적 성은 염색체에서 결정 되지만 성적인 유혹과 흥분이 되게 만드는 것은 유아적 환상이라는 무의식적인 요소로 인해 성적 대상이 결정된다. 애착관계와 성적인 대상을 연구에서 적어도 고등동물에 있어

서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같은 애착(전문적인 용어로 “각인”과 대충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은 어미에 대해 이루어진다. 만약 어미가 없을 때는 어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새끼 새를 새장에 넣어 키우면서 손에 올려놓고 먹이를 주면 이 새는 손에 애착을 갖게 된다. 이 새가 자라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동종의 새가 아니라 손과 짝짓기를 하려고 든다. “각인” 이란 용어를 도입한 콘라드 로렌츠(Konrd Lorenz)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진공청소기와'사랑에 빠진 까마귀의 예를 들고 있다(1952). 개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갓 태어난 강아지를 적어도 14주 이상 완전히 사람과 격리시켜 키운다면 개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인간에 대한 애착을 결코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동물에 대한 연구를 보면 많은 성적 충동이나 사회적 관계는 원래의 각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성장한 동물이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대상은 갓 태어나 최초로 애착을 가졌던 동물 또는 심지어 무생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숭이는 다른 원숭이 대신 천으로 만든 어미에게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애착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한 원숭이는 훗날 다른 원숭이들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장애를 겪게 된다. 이 같은 장애는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숭이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각인의 결함이 너무 심각하지 않아야 하고 유년기에 너무 일찍 형성되었어도 안 된다(Harlow, 1952. 1950)⁴⁾

정신분석가들은 분리-개별화 단계와 오이디푸스 단계 동안에 아동이 겪는 갈등으로 인해 반대 성을 가진 부모와 동일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라고 가정하였다. - 남아는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오이디푸스 갈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자신의 환상 속에서는 아버지를 제거하는 파괴적인 욕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투사 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거세 할 것이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두려움이 동성애가 되는 남아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굴복하게 되는데 이 때 방어적으로 어머니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 어머니를(여성) 차지하는 남자가 되어 아버지(남자)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자신이 여성과 동일시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취소시키고 사랑받는 관계적 설정을 하게 된다. 오토 쾰버그(Otto Kernberg)는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남자의 신체에 성애적으로 강하게 이상화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동성애 남성들 중에는 근육질의 남성들 모습과 크고 굵은 팔뚝 큰 발과 손 그리고 빅 페니스에 성적으로 집착을 하게 된다. 연구소에 찾아온 어떤 내담자는 6살 때 쯤 자신의 발이 작고 못생겼다고 느낀 후 부터 발과 손이 크고 길쭉한 남자들에게 눈이 가고 호기심이 느껴지면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뚜렷하게 성적인 흥분이 느껴지고 그런 남자와 만나고 싶은 충동으로 늘 채팅을 해오고 가끔씩 만나다가 결혼을 해서도 계속되는 채팅과 음란한 문자들로 부인에게 들키면서 상담을 온 케이스이다. 이 내담자는 결혼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아서 해보았지만 아내랑 성관계가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무료 할 때마다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실망과 좌절로 몹시 괴로워했다. 아내의 괴로워하는 모습에 이 내담자는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자신도 하루래도 빨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남자를 특히 남자의 발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지도 또는 이해 할 수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의식적이 역동이기에 의식의 내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채팅 할 때마다 큰 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채팅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 내담자의 부분적 대상은 빅 페니스가 아닌 큰 발이

4) 참조: 결혼생활의 정신역동적 이해 p.11

되었던 것인데, 큰 발이 당신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의 영역으로 안내 했다. 그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이지만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은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남성의 발은 남성성인 것 같다는 말을 한다. 그것은 자신의 남성성의 결핍이 그리고 남성적 힘이 자신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욕구가 큰 발이 욕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만지고 또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소통하고 섹스하면 마치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 같은 마술적인 환상이 있었던 것이다.

정신분석을 토대로 하여 더 발달 된 이론인 대상관계이론에서는 프로이드가 말한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기초적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더 깊은 층면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경험적 요소들 즉 부모를 이상화하는 과정과 이상화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실패하지 않고 잘 이루어졌는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과정을 변형적 내재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남성성을 잘 내재화하게 되고 아버지의 남성성을 그리고 아버지의 다른 요소와 함께 전달을 잘 받게 되는 것이다.

하인즈 코헷은(Heinz Kohut) 동성애의 성향을 가진 환자 A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는데 이 내담자를 치료하면서 자기에 취약성을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상화 과정에 대한 중요함을 더욱 강조한다. 이 내담자는 자기애적 에너지가 투자된 아버지 상의 측면(이상화된 아버지의 힘)에 대해 심각한 외상적 실망을 겪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상화된 대상에 대한 변형적 내재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격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이상적인 상(환자가 끊임없이 추구하는)에 대한 고착이 발생한 것이다. 그의 동성애적 환상 대상들은 항상 강한 육체적 힘과 완벽한 체격을 소유한 남성들이었다. 그의 이런 환상은 그런 남자들을 가학적으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비록 현실에서는 자신이 약하더라도 환상 속에서는 강한 남자를 속박할 수 있으며,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 때때로 그는 신체적으로 강하고 완벽한 남자를 수음하는, 또 그에게서 힘을 빼앗는 생각을 하면서 승리감과 강렬한 느낌 그리고 오르가즘에 도달했다.⁵⁾

A환자의 결함이 성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심리구조가 취약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중화 기능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a) 이상화된 (오이디푸스적인) 아버지 상(확고하게 이상화된 초자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상에 고착되어 있는)의 성화; (b) 리비도가 과도하게 집중된 과대 자기의 거울 이미지(안전하게 집중된 자기의(전)의식적 이미지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고착된 상태로 남아 있는)의 성화 그리고 (c) 이상과 자기 존중감을 획득하게 하는 심리적 과정 (내재화) 및 이상화된 가치와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존중감에 대한 그의 욕구의 성화. 따라서 환자의 동성애적 환상들은 분석가의 이론적 성향에 따라서는, 그의 자기애적 장애가 성화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

남성의 발에 흥분된 위 내담자도 프로이드가 말하는 갈등적 요소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또한 코헷이 말한 자기의 취약성에 따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자신만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심리상담에 접근이 더욱 용이하였다. 내담자는 발이 크고 손이 크고 키가 크고 골격이 좋은 그 남자를 만나면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이 변하는 것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만진다고 내가 남성성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은 무의식적 착각이 자기 식성⁷⁾에 맞는 남자들로 보이게 되고 그들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스운 일 일 것이다. 여하튼 충동과 감정에 휘둘림을 받으면서 살아온 자신

5) 참조: 자기의 분석 p.81

6) 참조: 자기의 분석 p.82

7) 동성애 사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

의 내면을 들여다보(정신화)면서 자신의 심리적 결핍을 이해하고 그 결핍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 드리는 시간들이 (특히 애도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더 이상 마술적인 환상으로 내가 강인한 남성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용 했던 성화되는 현상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정신분석 역사에서 1905년까지는 오이디푸스 단계에서의 발달적 결과가 동성애와 이성애의 기원을 결정한다. 많은 동성애 남성들은 초기 오이디푸스 관계에서 어머니에게 지나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근친상간적 환상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본래의 성적 감정을 다른 여성에게로 옮기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성적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다. 거세 공포 또한 성격의 통합을 구강기와 항문기 수준으로 퇴행하게 하고 그 상태에 고착되게 한다. 또한 동성애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대개 어머니와 가졌던 초기 전오이디푸스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동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과도하게 애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성적 지향과 초기 아동기 발달에 관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대상관계)은 초기 유아기의 어머니-아동 단일체로부터 개별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전오이디푸스적 요인들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록 일부 사례들에서 오이디푸스적 또는 전오이디푸스적 심리구성물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다중적 수준의 고착과 퇴행에서 유래된 기제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고착이나 발달 정지가 이루어지는 지점, 자아 기능의 수준 그리고 원시적 방어 기제의 사용이 다양한 정도의 정신병리와 갖는 상관관계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성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성적 대상을 선택하게 하는 무의식적 기초는 정신분석적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매우 적응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병리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도 않는다. 동성애는 다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개인적 성취와 성공적인 삶에 따른 갈등과 불안에 대한 방어 일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대상관계는 그에게 이미 존재하는 정신병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것은 이성애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성애자가 그러하듯이 동성애자도 성숙할 수 있고, 한 사람과 지속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는 피학적, 자기애적, 우울적, 경계선적, 또는 정신증적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프로이트(1905)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성도착(동성애를 일컫는 프로이트의 용어)은 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성도착은 효율성이 손상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들은 특별히 높은 지적 발달과 윤리적 문화를 성취하는데 뛰어난 사람들이다.

여성 동성애는 남성 동성애만큼 연구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 여성 동성애에 대한 이론들은 좀 더 많은 의문점들을 갖고 있다. 남성 동성애에 대한 연구에서처럼, 여성 동성애에 대한 초기 이론들은 남근-오이디푸스기의 갈등, 아버지(남자 형제들)에 대한 여아의 근친상간적 소망 그리고 어머니(자매들)에 대한 증오와 경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죄책감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전오이디푸스적 어머니-딸 관계로 방어적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상상 속에서 원색 장면에 노출되는 것과 성교를 가피학적인 것으로 보는 생각은

종종 그러한 갈등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거세 불안과 페니스 선망 수동적인 성적 소망과 삽입 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은 남성과의 동일시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이다. 여아는 어머니를 이상화할 수 있다. 그러나 것처럼 이상화된 어머니는 분석에서 때때로 냉담하거나, 간섭하거나, 신체 기능을 통제하거나, 자위행위를 포함해서 유아의 성적 만족을 금지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동성애자의 상대는 좋은 어머니"의 대리자이며, 동성애 행위는 행복했던 공생적 관계를 행동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화는 오이디푸스 갈등을 부인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딸은 자신의 어머니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어머니의 딸을 좌절시키기보다 성적 소망을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강렬한 친밀감은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결은 종종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융합 환상에서 오는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남성적인 것과의 동일시가 요구될 수 있다.

좀 더 최근의 이론은 오이디푸스 갈등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오이디푸스 시기 이전인 분리-개별화 단계동안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더 많이 강조한다. 선천적인 결함, 병원에서 겪는 의학적 절차 그리고 어머니의 신체적 및 정서적 부재는 성적 정체성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금 이것은 고착을 가져오고, 아동이 오이디푸스 갈등에 직면했을 때 퇴행을 유발한다. 모성적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성애적 파트너는 아동에게 중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대상의 상실은 아동에게 심각한 불안 또는 우울을 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또는 성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질 때 아이는 어머니에게 더 의존하게 되며,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 방어적인 피학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의존을 조장하거나 여아의 신체를 업신여긴다면, 여아가 겪는 거세 환상 공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여성이 동성애자가 되게 하는데 아버지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딸에게 관심을 주는 남자를 경멸하고 비난하거나, 이성과의 성적 만남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이성과의 사랑 경험이나 결혼에서 실망한 아버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생물학적 발달적, 심리내적, 문화적 영향의 복잡한 상호 작용이 관련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며 그 반대의 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용은 동성애를 무의식의 모성성에 의하여 지배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반대 성을 부정하면 우리는 지나친 이성애자로 동성애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시키고 자기의 일부분(죄)을 부정하는지도 모른 채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로 제거하려고만 들것이다. 사랑은 그리고 치료는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무엇도 모른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판단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동성애를 적대감으로 대하는 것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모두 진실과 거리가 멀다. 진실을 우리가 발견 한다면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찾고자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되어있으니 잠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 보자. 그리고 진

8) 참조: 정신분석학적용어사전pp.120-126

심을 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기바라며 나 자신을 용서하고(www.4giving.net) 사랑하기를 바란다. 나의 멋진 모습이 아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명이자 유언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타자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심리적 실제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층적 심리에 대한 이해함 없이 이 말을 듣는다면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로 그저 귀로 들리는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 하신다.

동성애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들을 만나 보면 자기 자신을 저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기는 잘 못 태어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 주시는가? 그 원망이 아랫배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 동성애들이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절실히 기도하고 매달려 보지만 딱히 변하는 것은 없고 그런 시간이 지속 될수록 하나님은 역시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기 쉬워진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시간들이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고 파괴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을수록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된다.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스스로 어찌 사랑 하고 용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버렸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어서 나는 나를 거부하고 부정한 것이다. 이제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허락하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저 너의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탓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치료란 이 사랑이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작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의 용서를 바라며, 행복하십시오!

참고문헌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오토켄버그,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줄리아 크리스테바,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아난케

하인즈코헷, [자기의분석], 한국심리치료연구소

리타카터외1명, [뇌 맵핑 마인드], 말글 빛냄

Leon J. Saul, [결혼생활의 정신역동적이해], 이문

마고선더랜드, [유아는 과학이다], 프리미엄북스

미국정신분석학회편, [정신분석 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브라이어 화이트헤드, [나는 사랑받고싶다], 웰스프링

도널드 위니컷, [가정 우리 정신의 근원], 한국심리치료연구소